

창단 50주년 광주시향, 말러 '부활'로 새 도약 알린다

반세기 동안 시민과 함께 호흡해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말러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선언한다. 광주시향은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06회 정기연주회 'G50'을 선보인다.

22일 광주예당 대극장서 정기연주회 성악가 황수미·이단비 협연무대 선포 시립합창단 등 대규모 합창 피날레도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소프라노 이단비

광주시향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 독창이 어우러지는 기념비적 공연이다. 지난 시간의 예술적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명 'G50'은 'Gwangju', 'Great', 'Glory'를 상징하는 'G'와 교향악단(Symphony Orchestra)의 정체성, 50주년의 의미를 결합한 이름이다.

광주시향은 이번 무대의 프로그램으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선정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과 고난, 죽음, 그리고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독창자, 합창단이 함께하는 후기 낭만주의 교향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곡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광주시향이 걸어온 50년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상징적 레퍼토리로 꼽힌다. 광주시향은 그간의 도전과 성취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새로운 도약의 의미를 무대 위에 담아낼 예정이다.

지휘는 예술감독 이병욱이 맡는다. 광주시향은 이 지휘자의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석 아래 말러 특유의 거대한 음향 구조와 감정선을 밀도 있게 구현하며 창단 50주년에 걸맞은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독창자로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황수미와 메조소프라노 이단비가 참여한

다. 두 성악가는 작품 후반부에서 펼쳐지는 인간 내면의 고백과 희망의 메시지를 깊이 있는 울림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말러 특유의 영적이고 서사적인 음악 세계를 설득력 있게 구현하면서도,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 사이에서 음악적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합창에는 광주시립합창단과 노이오페라코리스가 참여해 대규모 연합 합창단을 구성한다. 장대한 피날레에서 울려 퍼지는 합창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광주시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목소리로 연결하는 상징적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기억과 헌정', '도전과 극복', '부활과 미래'라는 서사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여향 광주의 예술적 역량과 도시 문화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연 'G50'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또는 YES24 티켓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지난 3월 서울 한강플랫폼에서 열린 전시 전경

ACC 창·제작 미디어아트, 전국 문화예술기관 순회전

서울·밀양·화성·김해 등서 이어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ACC에서 창·제작한 시각예술 작품의 대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순회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ACC재단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3일까지 '미디어아트 전시기관 공모'를 진행해 참여 기관을 선정했으며, 각 전시 공간의 특성에 맞춰 작품을 재구성해 선보이고 있다.

올해 첫 시각예술 작품 유통 사례는 지난 3월

서울 미래한강본부 '한강플랫폼'에서 열린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 전시다.

밀양문화관광재단 '해천상상루'에서는 현재 '빛으로 확장되는 감각의 세계'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오는 8월30일까지 '카본 클릭', '조립된 풍경화' 등 총 5개 작품이 월별로 공개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에서는 지난 4월25일까지 1부 전시 'Earth? -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통해 '불과 얼음의 노래', '끝섬'을 선보였다. 이어 오는 6월27일까

지 2부 전시 'Us! - 복수의 존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김해에서는 두 개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클레이아크 김해'에서는 오는 11월29일까지 '카본 클릭'을 선보이며,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에서는 8월30일까지 '이별만상-여러 가지 안녕', '입체 프레파라트' 등을 상영한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이번 순회 전시를 통해 ACC의 수준 높은 매체예술 작품을 전국 관객과 공유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안산, 동대문, 담양 등에서도 전시를 이어가며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AI·국악관현악으로 만나는 창극 '춘향이'

내빈소리민족예술단 16일 서구문화센터

전통 국악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창극이 광주 무대에 오른다.

(사)내빈소리민족예술단은 오는 16일 오후 6시30분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창극 '춘향이'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6 광주문화재단 공연장상주

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전통 예술의 현대적 변용을 시도하는 무대다.

특히 국악관현악과 AI 음악을 결합한 형태의 창극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판소리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AI가 생성한 새로운 선율을 더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출은 박규상 연출가가 맡았다. 박 연출가



는 판소리 고유의 호흡을 살리면서 화려한 무대장치보다 '질제의 미학'에 집중했다. 또 빠른 전개보다는 감정이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흐름을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디지털 시대, 젠더 불평등 해법 찾는다

광주여성가족재단 15일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3호에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 여성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세션은 '디지털 권위주의와 젠더 격차'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 새로운 여성 인권 기준

과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인권도시 광주의 역할과 비전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인공지능(AI) 딥러닝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 편향성 문제를 비롯해 기술의 돌봄 문제, 젠더 관점의 인공지능 정책, 인공지

능과 성차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인공지능 딥러닝 활용의 젠더 편향성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2부 토론에서는 김미경 한국여성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장지는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유실희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해 젠더 관점에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